정부지원 글로벌 협력 불교NGO 6곳 선정

안전행정부 최대 7000만원 지원

국제연꽃마을·다르마미·위드아시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신규단체도 4곳 네팔 베트남 등 지구촌 곳곳서 자비손길

안전행정부 반영리민간협력지원사업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부문에 6개로 불교기관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국제연꽃마을, 더르마미스 등 4개 기관은 신규지원단체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기관들은 각각 4000~7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네팔, 중국, 베트남 등 지구촌 곳곳에서 문화교류활동을 펼친다.

올해 첫 선정된 위드아시아(이사장 자현스님)는 한국다문화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히는 뽀레이벙 주 뽀레이고장 마을에 교육문화복합센터 '드림나래'를 새운다. 여신부주스님 예혜는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어린이들에게 미술, 과학, 체육교육을 진행한다. 도시실과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공동대표 임영근스님)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내 3개 소학교에서 도서관 환경개선, 사서교사 초청연수, 한글도서 지원 등을 실시한다. 체계적인 독서교육 활성화와 조선족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더르마미스(이사장 법등스님)는 미얀마를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NGO 회원의 참여 미얀마 활동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각국의 교육 활성화는 물론 현지 지역개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을 것으로 기대고 있다. 국제연꽃마을(이사장 각법스님)도 뽀레이벙 콘남 공동으로 환경보전 탐기사에 어린이집 등 한국형 복지교육타운을 건립할 예정이다.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보조금을 받는 아태리건설기업개발협회(상임대표 도재스님)와 수년째 지원단체로 선정된 파라미타불교선교협회(회장 정여스님)는 의료진과 봉사단을 꾸려 네팔과 라오스 오지마을에서 의료봉사 및 국제교류협력활동을 전개한다.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는 "공익사업성장위원회 심사를 거쳐 글로벌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부문에는 총 6개 단체를 확정했"며 "심사위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3년제 심사 및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위드아시아 상임이사 해진스님은 "단체들의 활동영역이 다양해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관이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불교 위상을 높이는 국제구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다원 기자

"사법금지법 막 제정"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일 전장 보건복지부 본관 의원실 앞고, 다문화 다종교 민권 보호를 위해 사법금지법 제정과 관심을 기울 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은 이미 100만 다문화가정에 육개 종교 50개 종파를 아우고 있는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이음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원회가 사법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형주 기자 ksdjoo@ibulgyo.com

사회약자 차별 조장 세력 '규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김한길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안 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법안을 철회하라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보수기독교 세력 반대가 거세지자 법안 철회 등 차별 발언에 동조하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종교적 가치를 앞세워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는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인권적인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람'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는 종교적 가르침을 부르짖어 왔던 기독교 세력은 자신들의 존재마저 부정해버리게 만들 대목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보수기독교 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된 다른 법안을 제출한다면, 기독교 세력이 국회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개악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라며 "이미 철회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철회하라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안은 지난해 11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 1건만 남게 됐다. 앞서 김한길 원내대표 의원은 "동성애 주인 의원님들께 읍리는 글" 을 통해 "법안을 철회하고 제는의를 통한 단일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종다원 기자 tong@ibulgyo.com

스님들 뜻에 달린 불교방송

이사장 자진 사임 불구 이사까지 해임 강행하다 종단 이사 스님들 격노

이사장 연담스님의 이사장직 거취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불교방송 이사장이 진통 끝에 물러났다. 더욱이 연담스님이 이사장직 사임서를 제출한 가운데 스님의 이사 해임과 관련 조계종 이사 스님들과 재가 이사들 간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사장가 폐업되는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불교방송은 지난 19일 오후 사울 가든호텔 변함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불교방송 이사 종헌스님이 임시의장을 맡은 이날 이사회에서는 '연담스님 이사 및 이사장 해임 안' 과 관련, 종단 이사 스님들이 "연담스님이 이사장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므로 이사장직 사임안 처리하자"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일부 재가 이사들이 "이사장과 이사 전체가 보궐한 해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서긴 등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사들은 오랜 격론 끝에 해임과 사임 건을 상정, 비밀투표 결과 해임 10표, 사임 8표로 해임이 가결됐다.

하지만 연담스님과 종단 이사 스님들은 이날 이사장 사임 제출 즉시 사직서 효력이 발생해 이사장에서 다른 "이사장 및 이사 해임의 건"이 상정되지 않는다"며 이날 이사회 결정사항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재가 이사회에서 설전이 예상된다. 이사 장직실은 "이사장 스님이 이사 해임의 건은 정식 안건으로 올린 것이 아닌 만큼 이날 이사회 결정은 반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히 일부 재가 이사들이 지나치게 경망적으로 주장을 펼쳐 갈등을 대폭도 심지 않아 보여 결국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면 구상진 이사는 이날 이사회 폐회직후 "불교방송 이사 및 이사장 해임안은 두기명 비밀투표로 가결됐다"면서 "현재 조계종 이사 스님들과의 협의 제남은 문단 상태로 다음 이사장 공석 시 이사회 소집과는 불교방송 사장에게 맡기고 남겼다.

이처럼 이날 이사회에서는 종단 이사 스님들과 불교진흥원 추천 이사들을 중심으로 한 재가 이사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대두되면서 향후 불교방송 정상화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계 일부에서는 이사장과 사장의 갈등이 증가와 재가 이사들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사장에서는 임시이장 선임부터 의견이 엇갈렸고 의외 내내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표결까지 갔음에도 정해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종단 이사 스님은 "이사장직을 사퇴한 상황에서 개인이 출연한 이사직까지 해임하라는 것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재가 이사들이 지나치 강경개입"이라며 "지적 종단 전통임의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는 참자 지 이사장에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동 · 허정철 기자

청소년 10분 집중명상 지도자 과정 첫 개설

금강선원, 호남·중금-심화 연수생 모집

(경상도은 10대를 깨워라) (15분 집중공부법) 등 집중력 향상을 위한 안내서를 봐내며 청소년 심성 수련에 매진해온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이 최근 '청소년 10분 집중명상' 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설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소년 10분 집중명상'은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과 금강선원이 청소년심성계발을 위해 운영 보급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종단간 포교그램이다. 여기에 포교원의 지원위원으로 활동해온 선원장 혜거스님이 직접 강사를 맡고, 연담 불교대학 교수 김진희교수가 전통 교육 체험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번 지도자 과정은 기존 교육과정 중 고급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일 전장 보건복지부 본관 의원실 앞고 지도자 및 재가신도 30명에 한정된다. 연수생은 서울삼사와 연담 등 3개 전원을 거쳐 선발하며 오는 5월11일까지 금강선원 사무처(www.geumgangsangja.or) 로 접수해 한다. 중급은 7월20일부터 8월말까지 제주 토~일요일, 심화, 선원장 스님과의 수행 면담을 비롯해 시범지도 시간 및 모임 일정 등으로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초급, 중급과정 이수자로서 조계종 산하 사찰 청소년법회 현장지도단 이상 경력을 갖춘 이에 한해 해거스님이 엄선 지도자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초급과정은 오는 5월20일부터 7월13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오후4시부터 6시까지 4시간씩 서울 단원기방법학원에서 진행된다. 중급과정은 8월 이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금강선원은 지난해 11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 1건만 남게 됐다. 앞서 김한길 원내대표 의원은 "동성애 주인 의원님들께 읍리는 글" 을 통해 "법안을 철회하고 제는의를 통한 단일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종다원 기자 tong@ibulgyo.com

고통 끝 행복 시작… '돔명 캠프' 개설

원명선원 활인선원

여러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캠프가 개설된다. 원명 활인선원과 제주 원명선원은 26일부터 '고(苦)명 치유센터' 를 연다. 그동안 급내고 명목을 '원어가자' 는 취지로 열리는 캠프는 두달로 진행되는 것 이기장 큰 특징이다.

고내부터 59세까지 남녀 연령대별(20~30대, 40~50대)로 20명씩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고명 캠프는 2박3일간 이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야외예배를 맨문, 물레 등 기본적인 일정과 함께 요가, 산행, 차선, 108배, 경여 등이 짜임새 있게 기획되어 있다. 오는 7월까지 이어지는 캠프는 원만선원과 원명선원 모두 구분된다. 활인선원에서는 4월26일부터 5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열리고, 원명선원에서는 5월 19일부터 7월14일까지 4차례, 모두 8차의 캠프 일정을 진행한다.

숙식과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참가자에 대한 제한이 있다. 심지자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활인선원장 대흥스님은 "명들어 신음하는 구성원이 있는 이상 사회도 건강할 수 없으므로 이번 캠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반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장 기자 hyjeon@ibulgyo.com

산중총회 소집공고

종헌 제105조 및 산중총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 **소집 일시** : 불기2557(2013)년 **5월 21일**(음 2013년 4월 12일) 화요일 오후 1시

◐ **소집 장소** :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설법전

◐ **안 건** : 방장 후보자 선출의 건

◐ **구성원 자격**
-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종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
-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비구
-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비구니. 단만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 수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이 이상의 당해 재적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회일 전 4년 이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정진**한 자
-. 당해 교구 대중생활에 동재하고, 전탁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 다만, 산중총회일 제6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제적승, 제적승, 거주승 제적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구선거 관리위원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승 신고기간**
불기2557(2013)년 **4월 27일**(토) ~ **5월 3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구성원명부 열람기간**
불기2557(2013)년 **5월 12일**(금) ~ **5월 14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거주승신고 · 구성원명부열람 장소** : 제14교구 선거관리위원회(범어사 종무소)

◐ **문 의 처** :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종무소(Tel. 051-508-3122)

불기2557(2013)년 4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 불